2004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1~4교시 정답 및 해설

• 1교시 언어 영역 •

1	④	2	③	3	②	4	⑤	5	⑤
6	②	7	①	8	⑤	9	⑤	10	②
11	⑤	12	③	13	③	14	④	15	②
16	③	17	②	18	③	19	①	20	②
21	①	22	⑤	23	⑤	24	②	25	①
26	⑤	27	①	28	②	29	②	30	⑤
31	③	32	⑤	33	②	34	④	35	①
36	②	37	②	38	④	39	③	40	③
41	②	42	①	43	④	44	①	45	⑤
46	③	47	③	48	⑤	49	④	50	②
51	①	52	③	53	②	54	④	55	④
56	⑤	57	③	58	②	59	①	60	④

/ 듣기 /

〈1번〉 이제 우리 고유의 난방 장치인 온돌에 대한 설명을 들려 드립니다. 그림을 보면서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우리 고유의 난방 장치인 온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마솥을 건 부뚜막에는 아궁이가 있는데, 이 아궁이는 장작을 듬뿍 집어넣고 불을 땔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아궁이에서 나무를 태우면 불길이 살아나는데, 이는 굴뚝과 아궁이의 기압 차가 불길을 안쪽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이 아궁이에서 지핀 불길은 통로인 고래를 타고 가면서 고래를 덮고 있는 구들장을 데우게 됩니다. 아궁이 바닥은 안쪽으로 갈수록 경사지게 만들어졌고, 아궁이에서 구들장 밑으로 이어지는 입구에는 부넘기라는 턱이 있습니다. 이 부넘기는 불길의 역류를 막을 뿐만 아니라, 불길이 고개를 바짝 들고 구들장을 데우면서 지나가게 합니다. 불길이 고래를 그냥 통과해 버리면 방은 데워지지 않고 아까운 열량만 소비할 뿐입니다. 고래를 통과하는 불길과 더운 공기를 구들장에 달라붙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 난방 시설의 핵심입니다.

고래의 끝 부분에는 구들장 높이 2배 정도의 깊이로 파놓은 개자리가 있습니다. 개자리는 따뜻한 공기와 불길이 구들장에 오래 머물도록 하여 열기가 굴뚝으로 직행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개자리는 고래보다 바닥의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불길과 연기가 굴뚝으로 나가기 전에 개자리에서 냉각되면서 그 속의 그을음이나 재 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 연기는 굴뚝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때 굴뚝의 연기는 온도가 낮아진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나무로 된 굴뚝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옥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구들과 굴뚝, 아궁이, 개자리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난방 장치로 인정받고 있으며, 수천 년 불을 지펴온 우리 민족이 고안해 낸 지혜의 결정판입니다.

1. 〔정보의 사실적 듣기〕
〔출제의도〕 정보를 사실적으로 이해하며 들을 수 있는 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개자리'는 아궁이에서 지핀 불길의 통로인 고래의 끝 부분에 있으며, 구들장 2배 정도의 깊이로 파인 곳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2번〉 이번에는 어느 학자의 실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느 학자가 학생들에게 곧은 막대기를 보여주고 그 막대기의 길이를 마음속으로 예측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학생들을 3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첫 번째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그들이 예측한 막대기의 길이를 종이에 적은 다음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여 제출하게 했습니다. 막대기의 길이에 대한 그들의 예측을 공식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막대기의 길이를 칠판에 쓴 후 남이 보기 전에 지워버리게 했습니다. 그들의 예측은 비록 자기 자신에게는 공식화되었지만 남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그저 마음속으로만 막대기의 길이를 예측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심리학자는 자신들의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그 답을 가장 완고하게 지키려는 집단이 어느 집단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실험 결과는 매우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막대기의 길이를 마음속으로만 예측해 보았던 학생들은 자신의 답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생각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막대기의 길이를 칠판에 적어 보았던 학생들은 자신들의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도 자신의 답을 수정하기를 꺼렸습니다. 물론 자신의 답을 끝까지 고수한 학생들은 예측치를 종이에 적어 서명하여 제출한 집단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볼 때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이 공식화되면, 그 결정을 매우 충실하게 지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 〔정보의 응용 사례 찾기〕
〔출제의도〕 실험의 내용을 듣고 이를 응용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실험의 결과는 자신의 결정을 공식화한 집단이 그 결정을 가장 충실하게 지키려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감량치를 주변 인물들에게 스스로 알린다는 것은 곧 자신의 결정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3번〉 이번에는 교양 프로그램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박사님, 이 그림은 비틀어진 고무풍선 같은데요?
박 사 : 네, 인체가 심하게 왜곡돼 있지요. 하지만 이 그림도 나름대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사회자 : 이런 그림들이 도대체 무슨 즐거움을 주나요? 그냥 한번 보고 웃고 넘기는 것 아닌가요?
박 사 : 쉽게 보면 한없이 쉬운 게 그림이겠죠. 하지만 화가들은 나름대로 인문학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은 이상하게 그려진 인체나 보면서 한바탕 웃으라는 메시지만은 아닐 겁니다. 웃고만 말 것이라면 차라리 만화나 코미디를 보는 게 낫겠지요.
사회자 : 하지만 예술도 때로는 너무 가볍고 경망스러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박 사 : 그 경망스러움도 때로는 예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뒤샹은 변기를 전시하면서 우리에게 예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지요. 이런 그를 보고 그저 가볍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사회자 : 그럼 이 이상한 그림을 통해서 화가가 특별히 하고자 한 말이 있다는 겁니까?
박 사 : 제가 보기에 화가는 소비에 중독 되어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인에 대한 연민을 말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사회자 : 그런가요? 하지만 무절제하게 소비하고 즐기는 현대인의 모습은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아닐까요?
박 사 : 그럴까요? 현대인의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죠.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뭔가 부족한 듯해서 무절제하게 소비하게 되었죠. 아마도 화가는 이런 현대인의 모습에서 연민을 느낀 거겠죠.

3. 〔사회자의 진행 방식 찾기〕
〔출제의도〕 사회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 프로그램에서 사회자는 박사의 의견에 대해 계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박사는 사회자가 제기한 의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박사는 답변을 통해 그림을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4번〉 이번에는 수업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물음과 답지까지 다 듣고 푸는 문제이니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남의 기분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자신이 공격적으로 보이거나 상대방이 불쾌하게 여길까 염려해서, 결국 자신의 의도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으려다 오히려 수동적으로 돼 버리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때 단호한 반응을 보이는 것과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반응은 '난 아무래도 좋아. 중요한 건 당신.'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면 남을 이용하거나 못살게 구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수동적인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면 분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공격적인 반응은 '당신은 아무래도 좋아. 중요한 건 바로 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권리만 챙기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둡니다. 남을 희생시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거죠. 이런 공격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호한 반응은 공격적인 반응과는 다릅니다. '나도 중요하고, 당신도 중요하다. 우리 모두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때로 단호하다는 것을 공격적인 것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호한 것은 각자의 의견을 내세우고, 감정을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표현함으로써 두 사람이 원하는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수평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공부할 때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당신에게 옆의 친구가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해도 되는 지를 물어 본다고 가정합시다. 앞줄의 학생부터 단호한 반응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제 다섯 학생의 대답을 들려 드립니다. '단호한 반응'을 보인 학생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학생 : 물론이야. 뭐, 난 괜찮아. 음악을 꼭 듣고 싶다면 그냥 틀어 놓아도 좋아.

두 번째 학생 : 당연히 안 되지. 너 지금 내 공부를 방해하려는 거니?

세 번째 학생 : 난 공부할 때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네가 좀 참아주면 안될까?

네 번째 학생 : 뭐, 좀 시끄러워지기는 하겠지만 난 굉장히 참을성이 있으니까 맘대로 해도 좋아.

다섯 번째 학생 : 음악을 안 트는 게 좋겠지만 꼭 원하면 말해. 내가 이어폰 빌려 줄게.

4. 〔들은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들은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단호한 반응'은 자신의 감정도 분명하게 표현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도 받아들이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부할 때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을 싫어하는 자신의 생각도 분명히 표현하면서도, 음악을 듣고 싶어하는 친구의 요구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부합하는 반응은 ⑤뿐이다. 따라서 답은 ⑤이다.

〈5번-6번〉 이번에는 토론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신입사원 채용 시 한자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경제 5단체장의 발표 이후 한자 지식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수님과 최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교수 : 네, 얼마 전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자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60%가 50점미만의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충격적이었죠. 우리말은 어휘의 70%이상이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말을 올바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자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학생들이 기초적인 한자조차 몰라서 전문 서적이나 학술 용어를 이해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심지어 강의를 진행하기조차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교수 : 우리말의 70%가 한자어라는 것도 과장된 것이지만, 우리말에 한자어가 많이 섞여 있다고 해서 한자를 알아야만 그 뜻을 잘 알 수 있다는 말은 모순입니다. 한자어도 오랫동안 사용해 오면서 이미 토박이말과 비슷한 수준의 우리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정확한 의미 파악을 위해 '학교'나 '책상'을 한자로 표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글로 표기되어 있을 때보다 과연 이해가 더 쉬울까요? 그뿐만 아니라, 문장 속에 한자를 섞어 쓰면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 작성에 3배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시간이 경쟁력인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자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남교수 : 아니죠,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국가 경쟁력의 차원이라면 오히려 한자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한자 문화권 시장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한자를 잘 알아야 합니다. 10억 이상의 한자 문화권 사람들끼리는 한자만 알면 별 문제 없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익힌다면 우리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교수 : 글쎄요, 중국의 간체자나 일본의 약자는 우리의 한자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식의 한자로는 중국의 간판이나 신문을 읽을 수 없습니다. 중국과 교류하려면 한자를 익혀야 하는 게 아니라 중국어를 배워야죠. 그리고 중국에서조차 복잡한 한자를 간략하게 표기하기 위해 간체자를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식의 한자는 더 이상 한자 문화권의 공통 문자가 아닙니다.

남교수 : 하지만 아직도 한·중·일 상용 공통 한자가 1600자가 넘습니다. 게다가 세계화 시대에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 속에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죠. 민족 문화 유산이나 고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한자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5. 〔토론자의 의견 구별하여 파악하기〕
〔출제의도〕 토론을 듣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구별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남 교수는 한자 지식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고, 여 교수는 반대하고 있다. 여 교수는 "한글만으로도 '학술적인 언어 표현'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6. 〔토론자의 주장을 지지하는 견해 찾기〕
〔출제의도〕 토론에서 어느 한 쪽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견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여 교수는 한자 지식의 필요성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즉, 일상에서 한자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생활에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면 굳이 한자 지식을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 쓰기 /

7. 〔주제 설정하기〕
〔출제의도〕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글쓰기에 적절한 주제를 설정할 수 있다.
[해설] 제시된 첫 번째 광고는 '인종 차별', 두 번째 광고는 '성차별을 없애자는 내용이다.' 따라서 두 광고는 사람은 누구나 인종이나 성별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8. 〔논지 전개 과정의 이해〕
〔출제의도〕 논지 전개의 흐름에 맞게 글을 완결할 수 있는가를 문제이다.
〔해설〕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은 서로 연결의 흐름이 정확해야 한다. 사이버 중독에 빠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갈수록 사이버 공간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과, 사이버 공간이 갖는 부정적 속성인 '권력욕'과 '소영웅 심리'를 부추기는 점 등이다. 따라서 해결 방안은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 의존하는 현대인의 생활 자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인터넷 사용 시간의 축소'와,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의 확대' 정도가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답은 ⑤이다.

9. 〔개요 수정하기〕
〔출제의도〕 개요를 작성한 후 글감의 논지에 맞게 새로운 자료를 활용하여 개요를 수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를 파악하여 보완할 점을 이끌어 낸 후, 건전한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글의 개요이다. ⑤의 <자료 1>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강구 추가'는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10. 〔자료를 활용한 글감 찾기〕
[출제의도]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문제이다.
[해설] 찬성과 반대측의 입장을 절충하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은 반대측의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찬성측의 '실시의 입장'을 절충하였고, ③은 반대측의 '정보화 소외계층의 배려'와 찬성측의 '전자 투표의 실시'의 입장을 절충하였고, ④는 반대측의 '조작 가능성과 전자투표의 집계 과정에서 감시'라는 찬성측의 입장을 절충하였고, ⑤는 전자 투표의 전면 실시에 앞서 기존의 '일반 투표를 요구'하는 반대측과 '전자 투표를 희망'하는 찬성측의 입장을 절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②는 장애우의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투표 방식보다 전자 투표 방식이 더 용이하므로, 투표 보조원을 굳이 가정까지 파견해서 투표소까지 안내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는 '절충 방안'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11. 〔고쳐 쓰기의 방안〕
[출제의도] 고쳐 쓰기 방안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은 앞뒤 문장이 인과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를 쓸 수 없다. ㉡은 주제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글의 흐름상 필요치 않은 문장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의 표준어는 '자투리'이다. ㉣은 '~해도 ~하게 된다'와 호응이 안 되므로,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아무리'로 바꾸는 것이 좋으며, ㉤은 '적절이'가 아니라 '적절히'가 맞다. 따라서 답은 ⑤이다.

12.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출제의도〕 홍보 문안을 조건에 맞게 창의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가 묻는 문제이다.
〔해설〕 첫 번째 조건은 시·청·후·미·촉각 등의 이미지를 구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②, ③, ④, ⑤에 나타나 있다.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두 번째 조건은 ③, ④에 드러나 있다. 세 번째 조건은, 간접 표현에 의한 설득이 효심을 자아냄으로써 궁극적으로 노인 복지 시설의 고객 유치에 도움을 주게끔 문안이 작성되었는지를 묻는 것이다. 우회적 표현은 ②, ③에, '효심'은 ③, ⑤에 드러나 있다.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것은 ③뿐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13. 〔잘못된 문장의 유형 찾기〕
〔출제의도〕 잘못된 문장의 유형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는, '아버지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다.'와, '아버지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로 해석할 수 있는 중의적인 문장이다. 이와 같이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오류가 나타나 있는 선지는 ③이다.
①의 '애도하며 명복을 빕니다.'는 '애도'와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는 오류, ②는 이중 피동의 오류, ④는 표현 어휘가 중복되는 오류이므로, '합격자 발표는 정문에서 한다.'로 고쳐야 한다. ⑤는 접속 부사의 호응이 안된 경우이다. '절대로'는 부정 서술어와 호응하므로 이 문장에서는 생략하는 것이 좋다. ③은 〈보기〉와 같은 중의적 표현의 오류이다. 이는 '나는, 철수와 영희를 만났다.'와, '나는 철수와, 영희를 만났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답은 ③이다.

14. 〔적절한 단어 찾기〕
〔출제의도〕 문장에 적절한 단어를 찾는 문제이다.
〔해설〕 '보조(補助)'는 '보태어 도움'을, '보완(補完)'은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함'을, '보충(補充)'은 '부족한 것을 보태어 채움'을 뜻하는 어휘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 현대소설 /

15. 〔서술상의 특징 확인하기〕
〔출제의도〕 소설의 서술상의 특징을 찾아내는 문제이다.
〔해설〕 제시된 부분은 이태준의 소설 <돌다리>의 결말 부분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세계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다. 즉, 땅을 팔아 큰 병원을 차리기 위해 시골로 내려온 창섭이가 아버지의 땅에 대한 신념을 듣고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있는 장면으로, 서술자는 두 인물의 대화와 설명을 통해 인물의 지향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①번은 땅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③번은 간결한 문장도 아니지만 사건이 긴박하게 전개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④번은 우연적 요소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⑤번은 사투리가 쓰이고는 있으나 해학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답이 아니다.

16. 〔작가의 의도 찾기〕
[출제의도] 소설 속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작가는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땅의 본래적인 가치보다는 금전적 가치를 중시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를 비판하고 있다. 아버지는 땅에 대한 애착과 신념을 지닌 사람으로 땅이 천지만물의 근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7. 〔작품 속 인물의 발화 의도 찾기〕
[출제의도] 조건에 맞추어 작품 속 인물의 발화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는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심리적 괴리감을 뜻하는 '인식의 아이러니'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A]부분을 이해하면, 아버지가 가진 신념의 세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자신의 뜻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단지 아버지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세계에 대한 동의를 보내지만 자신의 세계를 버리지는 않는다. 즉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②의 '아버지가 펼치는 신념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나머지는 모두 심리적 괴리감의 표현이다.

18. 〔문맥적 의미 추리하기〕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타당하게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아버지는 땅을 팔아 병원을 확장하려고 찾아온 아들의 부탁을 거절한다. 거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땅에 대한 신념을 밝히는 가운데 땅은 그 땅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팔아야 한다는 의도를 말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이 땅을 팔더라도 제대로 땅의 가치를 알고 그 땅에 정성을 다할 사람(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에게 팔아야 한다고 유언으로 남기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9. [다른 장르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소설 속에 나타나는 인물의 신념을 다른 장르에 적용하여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소설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땅을 팔자는 계획을 분명한 신념과 애착을 바탕으로 거절한다.
①은 '아버지가 처한 상황'과 가장 잘 호응하는 작품이다. 여기에서 '매화'는 '아버지', '봄 뜻'은 '아버지의 신념'에 각각 대응된다. 그리고 '바람', '눈', '찬 기운'은 '봄 뜻'과 대립되는데, 이는 아버지의 신념을 꺾고자 하는 '아들의 농토 매각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눈보라가 봄 뜻을 빼앗을 수 없음'과, '아들의 계획이 아버지의 신념을 좌절시킬 수 없음'은 서로 호응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사 회 /

[20-23] 출전 : 이준구, 새 열린 경제학

20. 〔내용의 사실적 이해〕
[출제의도] 본문에 나타난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①은 1문단의 '그러므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생산량을 적당히 줄여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에서, ③는 4문단의 '엄청난 돈을 써 이곳저곳에 광고를 한다거나, 관료들을 구워삶기 위해 많은 돈과 노력을 로비 활동에 쏟아 붓는 것은 모두 진입 장벽을 견고하게 만들려는 시도의 일환이다.'에서, ④는 5문단의 '독점체제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자도 없이 마음대로 시장을 요리할 수 있는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②는 2문단 '상품 생산량이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해 사회 후생이 줄어드는 것을 독점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손실의 첫 번째 것으로'에서 잘못된 진술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21. 〔다른 상황에 대한 적용〕
[출제의도] 본문에 나타난 중심 내용을 파악하여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는 허생이 돈 만 금을 빌려 독점 상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대목이다. 필자는 허생의 독점에 대해 본문에서 밝힌 '독점이 나쁜 이유'를 근거로 비판을 할 수 있다. ②, ④는 본문에서 전혀 단서를 찾을 수 없으며, ③은 <보기>의 '과일'과 '말총'을 통해 당시 제사를 중시하던 양반 사대부 입장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위 글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⑤는 허생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틀린 진술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22. 〔글의 전개방식 파악하기〕
[출제의도] 본문에 나타난 필자의 글쓰기 방식을 묻는 문제이다.
[해설] 전체적으로 독점이 나쁜 이유를 네 가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여, 완전 경쟁 시장의 효율성과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다는 ⑤가 정답이다.

23. 〔관점 파악하기〕
[출제의도] 서로 다른 관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는 독점체제에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공기업의 경우를 제시하여 독점체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독점체제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본문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견해이다. 따라서 본문의 중심 내용을 토대로 <보기>의 핵심 주장의 차이점을 검토하면 된다. ①, ②, ③, ④는 서로 대립되는 (A)와 (B)의 적절한 대화이지만, ⑤의 '공공성을 우선시한다.'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효율성 제고를 주장하는 (A)의 견해와는 다른 입장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 예술제재 /

[24-27] 출전 : 홍용선, 선화(扇畵)에 대하여

24. 〔세부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지문은 생활 주변에서 사라져 가는 부채에 대해서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후, 부채에 그려진 그림 즉 선화(扇畵)의 소재와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조선 후기 18세기를 거쳐 20세기에 이르는 동안 선화의 소재 및 서체, 화면 구성, 예술적 위상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선화의 기원에 대해서는, 중국 동진(東晋)의 왕희지가 거리에서 한 노파가 파는 부채에 그림을 그려 주었다는 기록이 있고, 선화가 우리 나라로 유입된 것은 대체로 13세기 초로 잡고 있다.

25. [글의 전개방식 파악하기]
[출제의도] 대상에 관한 정보의 진술 방식을 파악했는가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 글은 선화의 특징과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즉 선화의 특징과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26. [독자의 반응 파악하기]
[출제의도] 정보를 근거로 독자의 반응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해설] 네 번째 문단에서 시대에 따라 선화의 소재, 작가층이 변화했다고 했으므로 ①의 '선화의 제작 연대 유추'가 가능하며, 첫째 문단에서 선화가 그려진 부채는 기분과 흥을 돋구는 미술품이라는 구절을 통해 ②의 '선화를 토한 조상들의 멋스러움과 풍치'를 알 수 있고, ③의 '선화에 대한 인식 변화'는 다섯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는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에서 '선화가 예술적 가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⑤의 '부채 재질'에 대한 언급은, 본문의 논의 대상은 선화이지 부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부채의 재질에 대한 설명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27.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지문 내용을 근거로 다른 사실을 유추하는 문제이다.
[해설] ②는 산수, ③은 소나무, ④는 풍속, ⑤는 호랑이를 소재로 하고 있다. ①은 매난국죽(梅蘭菊竹)의 하나인 난초를 소재로 다루었으며, 다른 선화에 비해서 여백의 미가 강조되었고, 구조적으로 단순하고 간결하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 현대시 · 고전시가 /

28. 〔작품의 공통점 찾기〕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작품들의 공통점을 찾는 문제이다.
[해설] (나)에는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의 모습이 '꽃'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다)에는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가 '극락정토'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29. 〔작품에 나타난 표현 기법 이해하기〕
[출제의도] 작품에 나타난 표현 기법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해설] (가)는 농민이 노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한시에서 많이 사용되는 선경후정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노동 모습에 대한 묘사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옹헤야'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엿볼 수 있다. '새로 거른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에서는 직유법을 구사하고 있으며,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에서 과장법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이입된 시어는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30. [비교 감상하기]
[출제의도] (가)작품과 <보기>작품을 비교 감상하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는 김소월의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더면'이다. 이 작품은 유랑의 삶을 살면서 과거 정착의 삶의 회복을 갈망하는 작품으로서, 자신의 땅에 농사를 짓고 싶다는 희망을 표현한 작품이다. 특히 의지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싶은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①의 경우 <보기> 작품의 화자가 농촌의 현실을 잊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②의 경우 <보기> 작품에만 현실적 공간과 환상적 공간이 대비되어 있다. ③의 경우 <보기> 작품에 유랑하는 삶과 정착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④의 경우 두 작품 어디에도 절망감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⑤의 경우 (가)의 화자가 농민의 노동하는 모습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고, <보기>의 경우엔 상실한 과거 농촌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31. [비평을 통해 작품 이해하기]
[출제의도] 작품에 대해 해설하는 글을 읽고 그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해설] (나) 작품의 경우 '꽃'은 아침마다 개벽하는 존재로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이다. 그리고 화자가 '꽃'을 지향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지향한다는 의미이다. '문'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와 유한한 인간 세계의 중간에 위치한 사물로서, 화자는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열망을 '문 열어라 꽃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물낯 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라는 표현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물에 얼굴을 비추기는 하지만 그것이 화자의 자아 성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32. [시어의 성격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에 나오는 시어가 가진 성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나)에 등장하는 'ⓐ노래'는 '구름'까지만 갔다가 되돌아오는 존재이다. 즉 한계를 지닌 존재인 것이다. 'ⓑ말'은 '바닷가'에 가서 멎어 버린 존재이며, 'ⓒ산돼지'는 화자가 '입맛'을 잃어버린 존재이다. (다)의 'ⓓ아우성'은 화자의 가슴속에 있는 번뇌를 상징한다. 그러나 'ⓔ강변'은 내면의 평화를 이룩한 상태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어는 '강변'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33. [시적 기능의 유사성 파악]
[출제의도] 시적 기능의 유사성을 파악한다.
[해설] <보기>에 제시된 작품은 서정주의 <추천사>이다. 이 작품은 이상 세계에 대한 지향과 좌절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인데, 이상 세계를 상징하는 시어가 '머언 바다'이다. 그러므로 '배'는 '머언 바다'로 가는 수단의 의미를 가진 시어이다. (나)에 나오는 '길'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로서 <보기>의 '배'와 유사한 시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어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34. [작품에 대한 종합적 감상]
[출제의도] 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설] ④의 경우 작품의 시상 전개에서 서사적 과정은 드러나지 않다. 서사 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전개를 의미하지만, 이 작품은 '자수'를 대하는 시적 화자의 심리를 표현한 작품이기 때문에, 서사적 과정은 이 작품과 무관하다. 또한 섬세한 내면 정서를 표현한 작품이기 때문에 공간의 이동에 의한 시상 전개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 인문 제재 /

[35-39] 출전 : 황경식, 해리의 발견

35. 〔세부 정보의 파악〕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해설] ②는 첫째 문단에서, ③과 ④는 셋째 문단에서, ⑤는 둘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①은 넷째 문단에서, "연역 논증을 통해 각종 진리를 도출하는 것에 반기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36. 〔세부 정보를 바탕으로 사례의 적절성 판단하기〕
[출제의도] 특정 정보에 대한 심층 이해를 바탕으로 사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해설] ①은 종족의 우상, ③은 시장의 우상, ④는 극장의 우상, ⑤는 동굴의 우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②는 단순히 '개인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이지 베이컨이 말한 우상에 해당하는 사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37. 〔추론 방식의 이해〕
[출제의도] 본문에 제시된 추론 방식의 이해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경험에 바탕을 둔 귀납적 논증'이란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귀납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을 말한다. ①, ③, ④는 연역 논증이며, ⑤는 유비 추론이다. ②는 나의 기분이, 성적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에 따라 우울해하고 싱글벙글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기분은 성적에 좌우된다.'는 일반적인 명제를 이끌어내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38.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본문의 맥락상 '진정한 지식'은 독단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난 '창의적으로 수용한 지식'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 중, 이와 가장 가까운 뜻을 지닌 것은

ⓓ이다. ⓐ, ⓒ는 무비판적인 수용의 대상을, ⓑ와 ⓔ는 선천적인 능력이나 선천적으로 생산되는 재료를 뜻한다. 따라서 답은 ④이다.

39.〔어휘의 쓰임 파악〕
[출제의도] 어휘의 쓰임이 같은 유형을 찾는 문제이다
[해설] ①은 '손이나 몸에 지니다.'를, ②는 '직업이나 자격증을 소유하다.'를, ④는 '관계를 맺다.'를, ⑤는 '어떤 일이나 행사를 치르다.'를 뜻한다. 본문의 ㉡은 '생각, 사상, 태도 따위를 마음속에 품다'를 뜻한다. 따라서 답은 ③이다.

/ 언어 제재 /

[40-44] 출전 : 성낙수, 방언의 특징
이석주, 신체 언어의 변화

40.〔내용의 확인〕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가)는 방언의 변화와 그 원인 및 특성을 설명하는 글이고, (나)는 신체 언어의 특성과 기능 및 제한점 등을 설명하는 글이다. ③번은 (나)의 두 번째 단락에서 인사하는 행위는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중심으로 하는 과거의 인사법과 달리 악수와 같이 평등을 전제로 하는 인사법으로 바뀌고 있다는 표현이 있으므로 틀린 것이다. ①번은 (가)의 첫 단락에서, ②번은 (가)의 두 번째 단락에서, ④번은 (나)의 세 번째 단락에서, ⑤번은 (나)의 마지막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41.〔언어의 특성 적용하기〕
[출제의도] 두 글에 공통으로 나타난 언어의 특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가)와 (나)는 모두, 언어의 일반적 속성 가운데 하나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과, 언어에는 시대와 사회의 모습과 문화적인 요소가 반영된다는 특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2.〔단어의 쓰임 이해하기〕
[출제의도] 단어의 쓰임이 적확하게 쓰이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 ] ⓐ는 '함께 쓰임',이나 '아울러 쓰임'을, ⓑ는 '사용된다'를 뜻하는 쓰임이다. 따라서 ⓐ는 '병용(竝用/倂用)'이나 혼용(混用), ⓑ는 '사용(使用)'의 뜻으로 쓰였다. 병용(竝用/倂用)은 '아울러 같이 씀'을, 적용(適用)은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씀'을, 통용(通用)은 '일반적으로 두루 쓰임'을, 활용(活用)은 '충분히 잘 이용함'을, 사용(使用)은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을, 범용(汎用)은 '여러 분야나 용도로 널리 쓰는 것'을, 겸용(兼用)은 '한 가지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씀'을, 소용(所用)은 '쓸 곳. 또는 쓰이는 바'를, 응용(應用)은 '어떤 이론이나 이미 얻은 지식을 구체적인 개개의 사례나 다른 분야의 일에 적용시켜 이용함'을 뜻하는 어휘이다. 따라서 답은 ①이다.

43.〔세부 정보의 확인과 추론〕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를 확인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추론한 결과가 타당한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①은 1문단에, ②는 3문단에, ③은 4문단에, ⑤는 2문단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거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④의 "방언이 유지되려는 힘이 클수록 방언의 통일성은 강화될 것이다."는, "방언이 유지되려는 힘이 클수록 방언의 통일성은 약화될 것이다."로 고치거나, "방언이 유지되려는 힘이 약할수록 방언의 통일성은 강화될 것이다."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답은 ④이다.

44.〔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상황에 적용한 심화 활동이 타당한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②는 첫째 문단 끝에, ③은 첫째, 넷째 문단에, ④, ⑤는 넷째 문단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려는 학습 활동은 심화 학습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①은 셋째 문단에 '표현할 수 있는 몸의 부위가 제한적'이라고 이미 확실하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심화 학습 활동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따라서 답은 ①이다.

/ 고전 소설 /

45.〔내용과의 부합 여부 파악하기〕
[출제의도]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제시된 선택지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민 영감이 나의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들은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난 신선한 행동이지, 민 영감의 변덕스럽고 괴팍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46.〔글의 특징을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방법 및 표현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 작품은 '나'의 병에 대해 민 영감이 묻고, 처방을 하는 과정에서 나누게 되는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단순하게 일화를 소개하는 부분으로서 소설 기법상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47.〔인물 행동의 의도 파악하기〕
[출제의도] 등장 인물의 행위에 대한 의도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민 영감은 화자의 우울증, 거식증, 불면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도된 행동을 한다. ㉠과 ㉡은 '나'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행동이며, ㉢은 '나'의 거식증을, ㉣은 '나'의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은 '나'의 불손한 태도에 대한 노여움을 표시하기 위한 행동, 또는 자신이 밥을 게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화내는 행동은 '밥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 밥을 먹는 행동은 '병(거식증)을 치료하기 위한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48.〔인물의 문제 해결 방법 파악하기〕
[출제의도] 등장 인물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유추해내는 문제이다.
[해설] 화자는 우울증에 걸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며 웃음을 잃어 버렸다. 그 병을 해결하기 위해 화자는 재미있고 익살이 넘치는 고담(古談)과 음악을 들으며 치료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사람을 시켜 민 영감을 모셔 오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찾아 온 민 영감은 악공의 빰 때리기, 게걸스럽게 밥 먹기, 어려운 책 읽히기 등의 기발한 발상과 행동으로 화자의 병을 치료한다. 이러한 처방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옛 것에서만 찾으려 고 하지 말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린 눈을 가져야 한다(관점의 변화)는 지은이의 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 수필 /

49.〔글의 서술 방식 이해하기〕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 글에서 글쓴이는, 자전거라는 일상적 소재와 자전거 타기라는 일상적 행위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밝히고 있으며(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에서 경험하고 느낀 바를 인생 길과 결부시켜 서술하고 있으며(②), 글 전반에 자전거를 타고 다닌 체험을 나타내고 있으며(③), 7, 8문단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서정적인 문체로 고갯길에서의 자전거 타는 행위를 세밀하게 서술하여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④에서 말한 '대조적 상황 제시'는 이 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50.〔정보간의 관계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의 정확한 독해를 통해 글에 제시된 사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A]부분에서 몸, 자전거, 길, 강물, 시간 중에 서로간의 관계성이 가장 미약한 것은 '강물-몸'이다. '몸-자전거', '길-몸', '길-자전거'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고려하면 당연히 그 관계성이 긴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시간'은 그 모든 것과 관계성이 깊지만 특히 '시간-몸', '시간-강물'은 더욱 관계성이 깊다. '몸'으로 자전거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시간'의 사용을 전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강물'은 '흐름의 속성'면에서 유사성을 지녔으므로 역시 관계가 깊다. 그러나 '몸'과 '강물'은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지는 않다. '강물'은 단지 '시간의 흐름'을 비유하는 보조 관념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51.〔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수필 작품을 <보기>와 같은 작품으로 창작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고려했을 사항에 대해 추론해 보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 시는 '김종길'의 <자전거>이다. 이 시에는 노년을 담담히 보내고 생의 종말까지도 순순히 수용하려는 태도를 지닌 황혼기의 화자가 나온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내리막길을 인생과 결부시켜 다가올 상황(결국엔 쓰러질 것)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3연의 '반짝이는 석양', '찌렁찌렁 울리는 방울'에 나타난 감각적 이미지는, 삶에 대한 수용적 자세에서 오는 '잠시의 여유와 아름다움' 정도로 이해해야 하며, '생동감이 넘치는 분위기'의 조성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52.〔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에 나타난 지은이의 생각을 문맥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의 '힘을 쪼개가면서 힘든 고개를 넘어간다'라는 말은, 집중된 힘을 분산시키며 힘들고 어렵게 고개를 넘어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③의 '힘들이지 않고 험한 고개를 넘은'은 글을 잘못 이해한 경우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 과학·기술 /

[53-56] 출전 : 김홍종, 수학은 배워서 어디에 쓰는가

53.〔서술방식의 특징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이다.
〔해설〕 수학은 추상성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용성과 거리가 먼 것처럼 여기는 통념에 대해 아르키메데스의 일화와 현대의 금융 시장에서 수학이 발휘하는 영향이 막강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예로 들어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결론 부분에서 수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잘못된 통념을 지적한 후 수학의 성격을 이론과 실용적인 면을 동시에 추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글'로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54.〔내용의 심화 활동〕
〔출제의도〕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심화 활동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④는 4단락에 이미 그 영향 여부가 확실하게 밝혀져 있으므로 심화 학습을 하는 활동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55.〔예시 찾기〕
〔출제 의도〕 구체적인 예를 찾는 문제이다.
〔해설〕 ①에서 확률을 공부한 이유는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였으므로 '실용적 측면'의 강조이다. ②는 수학을 공부한 이유가 비논리적인 사고의 교정이므로 실용적인 측면에서 수학을 공부한 것이다. ③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학이론을 배웠으므로 실용적인 측면에서 수학을 배운 것이다. ⑤는 학생에게 도움을 준다는 실용적인 측면을 위해 책을 학습 자료로 활용한다. 하지만 ④는 바이러스에 대한 흥미와 공부에 의해 자연히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으므로 실용적 측면이 가미된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답은 ④이다

56.〔자료 해석의 적절성〕
〔출제 의도〕 〈보기〉의 자료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한 말을 찾는 문제이다.
〔해설〕 [A]의 내용은 수학의 실용적 측면과 더불어 수 자체가 지닌 묘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보기〉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면서 간단한 사칙연산을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의 계산 결과는 매우 단순하게도 '1'이라는 숫자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이는 숫자를 규칙적으로 조합하면 숫자 자체에서 신비할 정도로 놀랄만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⑤가 정답이다

/ 과학·기술 /

[57-60] 출전 : 김대식, 과학이 세계관을 바꾼다

57.〔전체적 사실의 이해〕

〔출제 의도〕 글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①은 2문단에서 알 수 있다. ②도 2문단, ④는 1문단, ⑤는 2문단에서 알 수 있다. ③의 내용은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58. **〔문맥의 이해〕**

〔출제 의도〕 문맥이 지닌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은 '①아버지의 게놈이 자손에게 전달된다, ②게놈의 프로그램에 의해 태아가 형성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①은 게놈은 순서대로 협력한다는 점을, ③은 어버이의 게놈이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점을, ④는 어버이의 게놈이 유전된다는 점을, ⑤는 외부적인 여건이 개입되면 유전자가 잘못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점을 본문의 1문단에 나온 내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②는 발달 중인 태아에게 읽어주는 이야기책과 인지 능력과의 관계는 본문의 내용과 ㉠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59. **〔개념에 대한 파악〕**

〔출제 의도〕 개념에 대한 의미를 알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유전의 원리'라는 화제에서 어긋난 답지를 찾는 문제이다. ②질병 유전자의 배열이 어떤가를 알면 유전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으며, ③유전병에 대한 연구를 하다보면 유전의 원리를 알 수 있으며, ④질병이 걸리기 쉬운 체질이 되는 이유에 대해 탐구하면 유전의 원리를 알 수 있고, ⑤유전자가 세포의 성장에 관여하는 과정을 알면 유전의 원리에 대한 학습이 된다. 하지만 ①의 유전자 연구의 지원 대책은 '유전의 원리'와 관련이 없는 세부 항목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60. **〔글쓴이의 대책 파악하기〕**

〔출제 의도〕 글쓴이의 관점에서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책을 이끌어 내는 문제이다.

〔해설〕 3문단에 의하면 글쓴이는 유전자의 원리를 알면 결함 유전자가 생화학적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을 교란시키는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질병을 차단할 수 있는 약과 예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단정지었다. 〈보기〉는 결함 유전자를 지닌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유전자 제일 주의 현상이 대두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한 글쓴이의 대책은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유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 결함 유전자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